



작품·대중성 겸비 다양한 라인업 ‘눈길’

2025 ACC수요극장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 저녁 국내외의 우수 공연 스크린으로
내년 첫 작품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베토벤 교향곡 5번’



클래식부터 오페라, 무용, 연극, 창극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들이 스크린으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 국내외의 우수한 공연을 고품질 영상으로 상영하는 ‘ACC 수요극장’을 2025년에도 운영한다.

국내의 다양한 우수 공연의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ACC 수요극장’은 고정 관객을 보유한 관객친화 프로그램이다. 내년에는 해외 유명극장의 공연실황, 국립예술단체의 우수 공연, 10주년을 맞은 ACC 창·제작 공연 등 더욱 다채로운 구성으로 관객과 만난다.

2025년 첫 작품은 국립심포니오케스

트라의 ‘베토벤 교향곡 5번’이다. ‘운명’이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져 오늘날 한국 관객이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월에는 국립창극단의 작품 ‘나무, 물고기, 달’과 국립무용단의 작품 ‘호동’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대중적 선호도가 높은 클래식과 오페라 외에도 작품성을 인정받은 다양한 연극작품도 만날 수 있다.

ACC대표 레퍼토리 공연인 ‘나는 광주에 없었다’ 연출가 고선웅의 작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국립극단 제작)’과 극작가 천승세의 대표 희곡 ‘만선(국립극단 제작)’을 내년 5·6월에 상영할 예정이다.

또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발레

공연 영상도 준비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가족과 함께 관람하기 좋은 공연으로 내년 5월 첫 주에 상영된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로맨틱한 분위기의 연말 공연으로 12월에 찾아온다.

특히 올해 진행된 관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국립오페라단과 해외 유명극장의 생생한 오페라 공연을 보다 강화했다. 내년 7월에는 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국립오페라단)’을 음성해설이 포함된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해 보다 많은 관객에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ACC의 다양한 창·제작 작품을 영상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자연의 시간을 살아내는 여인들의 삶을 그린 ‘마디와 매듭’, 공간을 이동하며 이어지는 사건과 갈등을 담은 ‘집시꽃길 85번지’가 내년 11월에 시공간의 순환을 주제로 상영된다.

‘ACC 수요극장’은 전석 무료로, ACC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매와 현장 예매로 관람이 가능하다.

이강현 전당장은 “내년에도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대중화 프로그램을 이어나가겠다”면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다양한 공연 영상으로 꾸준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ACC 수요극장’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2024 광주미술상 조유나 개인전

‘HAPPY DAY’

오는 31일까지 총장22 갤러리

2024 광주미술상 수상작가로 선정된 조유나 개인전 ‘HAPPY DAY’가 오는 31일까지 총장22(동구 총장로22번길2) 갤러리에서 열린다.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입체 작품 총 11점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가 자신의 일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주는 것들을 형상화시킨 결과물이다.

작가의 작품은 유년기 시절 엄격한 가정환경에 따른 심적 억압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비롯됐다. 그는 치유를 위해 예술과 그 의미를 탐구하는 작품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타인의

시선에 대한 현대인들의 내적 강박을 조형적으로 풀어내며 광주의 정체성인 빛과 자아를 결합시킨 실리온 내온 빛 조형 작품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오후 4시 총장22 갤러리 전시장에서는 문희영 예술공간 집 대표가 대담을 맡아 작가와 작품 세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다.

한편 수상작가에게는 창작활동비 및 도록제작비, 광고비, 전시운영 인건비 등 1천만원 상당의 지원금과 전시공간,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이 주어졌다.

수상작가가 만 45세가 되면 광주미술상 운영위원으로 동참하게 된다.

/최명진 기자

광주과학관, 인공지능관 신규 전시품 도입

‘로봇 강아지’ 등 최신 기술 반영

국립광주과학관이 인공지능관 신규 전시품 3종을 선보인다.

전시품은 ‘인공지능과 내가 만드는 영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모션아트’, 비전 알고리즘과 강화학습을 활용한 ‘로봇 강아지’(사진)다.

‘인공지능과 내가 만드는 영화’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 관람객의 모습을 명화 속 인물처럼 바꿔주는 체험형 전시품이다. 모나리자 얼굴에 관람객의 표정을 합성해 마치 작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모션아트’는 비전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관람객 움직임을 인식해 화면 속 예술 작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시품이다.

‘로봇 강아지’는 강화학습으로 다양한 동작을 학습한 로봇으로 걷기, 뛰기, 쪼그리기, 점프하기, 애교부리기 등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인공지능과 내가 만드는 영화’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모션아트’는 인공지능관 2층 상설전시관에서 상시 체험 가능하다. ‘로봇 강아지’는 인공지능관 1층 특별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상우 국립광주과학관 전시기획실 연구원은 “이번 신규 전시품 도입을 통해 관람객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심청전의 새로운 해석...해학창극 ‘뽕파스캔들’

오늘 광주국악협회 빛고을창극제

광주국악협회가 26일 오후 7시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뽕파스캔들’을 주제로 제3회 빛고을창극제를 연다.

이번 창극제는 총 2부 공연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퓨전난타, 화선무, 여풍화류, 진쇠춤으로 오프닝 무대가 펼쳐지며 2부에선 해학창극 ‘뽕파스캔들’ 본공연이 진행된다.



‘뽕파스캔들’은 심청전 일부를 각색한 해학창극으로 기존 등장인물에 새로운 인물이 추가되며 시대를 초월한

한 해학창극으로 기존 등장인물에 새로운 인물이 추가되며 시대를 초월한

장면 연출로 흥미를 더한다.

욕심 많고 심술궂은 뽕파가 백수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돈에 눈이 멀어 황봉사, 심봉사와 스캔들을 일으키고 돈을 훔쳐 도주한다는 내용이다.

총감독을 맡은 함태석 광주국악협회 회장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엿볼 수 있는 해학창극으로 한바탕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활성화시키고 예향의 도시 광주 위상을 제고하며 지역민들의 삶을 응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